pISSN 1226-4474, eISSN 2982-6845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33, No. 3, September 2026, 207-221
https://doi.org/10.15284/kjhd.2026.33.3.207

KJHD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그릿과 양육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ality of Infants on Parenting Behavior: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Grit and Parenting Stress

1차원고접수: 2026.07.10. 수정원고접수: 2026.08.24. 최종게재결정: 2026.09.19.

하지영[1] · 최혜선[2]
[1]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2]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아동연구센터, 연구위원

Ha, Ji Young[1]
Choi, Hyesun[2]
[1]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osong University
[2]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 그릿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영유아교육 · 보육패널의 1차년도 조사(2022년)에 참여한 가구 중, 본 연구변인에 모두 응답한 2,157가구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ROCESS macro 모형 4와 7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양육스트레스를 높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그릿에 의해 조절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그릿이 높은 경우에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거나 낮더라도 양육스트레스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그릿이 낮거나 평균인 경우에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교류적인 관계라고 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그릿이 양육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교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그릿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부정적 정서성, 양육행동, 그릿, 양육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influences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hrough parenting stress of mothers and whether mothers' grit moderates this influence. We utilized data from 2,157 households in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nel Stud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models 4 and 7 for mediating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respective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affected parenting behaviors through mothers' parenting stress.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increased parenting stress, which in turn influenced parenting behaviors. Second, mothers' grit moderated this mediation effect by strengthening the effect of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on mothers' parenting stress, which subsequently reduce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This study suggests that since mothers and infants influence each other reciprocally,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can trigger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s, which in turn can affect the infant. The study also confirms that mothers' grit can serv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parenting stres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hows the importance of a mother's grit as a factor that can positively develop mother-infant interactions.

Keywords *negative emotionality, parenting behavior, grit, parenting stress*

* 본 논문은 202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임.

Corresponding to 최혜선(Choi, Hyesun)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 아동연구센터, 연구위원(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E-mail. hschoi20@wku.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의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은 사회정서적 발달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기질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념화되어 왔지만 Rothbart(1989)의 기질 이론 모델에 따르면, 기질이란 생물학적 토대에 근거하는 '반응성(reactivity)'과 '자기 조절(self-regulation)'의 개인차로 정의된다. 기질의 차원 가운데 부정적 정서성은 공포, 불안, 슬픔, 좌절, 분노 등의 정서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로서 이와 관련된 정서, 행동, 생리적인 반응의 민감성과 강도, 지속성 등을 '반응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반응성을 조절하여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을 '자기 조절'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즉,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러한 반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이후의 사회정서적 적응과 발달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걸음마기, 유아기, 아동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이 있으며(Casalin, Luyten, Vliegen, & Meurs, 2012; Eisenberg, Spinrad, & Eggum, 2010; Komsi et al., 2006), 영아기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이후의 내재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 낮은 사회정서적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정희, 신나리, 2018; An & Kochanska, 2023; Behrendt, Wade, Bayet, Nelson III, & Enlow, 2020; Eisenberg et al., 2009; Wittig & Rodriguez, 2019). 따라서 생애 초기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이를 둘러싼 양육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영아의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이후 발달 단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Murphy, Eisenberg, Fabes, Shepard와 Guthrie(1999)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학령전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부모와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의 빈도와 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Sallquist et al., 2009). 영아기에는 정서의 조절이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며, 발달 과정에서 자기조절을 배우게 되어 스스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Kopp & Neufeld, 2003). 따라서 영아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아의 정서사회화와 관련된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서사회화 연구들은 영아의 정서성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민감성을 중요한 양육 특성으로 제시해 왔다. 어머니가 영아의 신호와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으며, 정서조절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Propper & Moore 2006; Rodriguez et al. 2005).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인정해 주고,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아동 중심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자녀는 어머니를 정서 조절에 대한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Spinrad et al., 2007).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모의 민감한 양육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특성임을 시사한다.

영아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한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해 양육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즉 양육자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다루고 양육하는가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한 발달적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영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주변환경, 특히 양육자로부터의 반응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영아의 기질이 부모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부모의 반응이 다시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므로 영아와 양육자의 관계는 상호교류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 Sameroff(1975)의 상호교류모형(transitional model)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양육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유발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Hershberger, 1994)에 근거하여 영아의 기질이 양육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Crockenberg(1986)는 영아의 기질적 특성인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자의 양육 방식, 특히 반응성과 민감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으며,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양육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Kiff, Lengua와 Zalewski의 연구(2011)에서 좌절감과 충동성이 높고 의도적 통제 능력이 낮은 영아일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부정적 양육행동은 다시 영아의 해당 특성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포함한 기질적 특성이 부정적 양육에 영향을 미치기 쉬우며,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상호교류하여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를 수행한 Bridgett 등(2009)도 생후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아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과 낮은 조절 능력이 18개월 시점의 어머니의 과잉반응, 일관성 부족 등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각성 수준이 높고 달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정서와 행동을 더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양육방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관련 기질이 양육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는 반면, 이러한 기질이 항상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Crockenberg(1986)는 생후 1개월 및 3개월 시기의 울음 및 진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후 9개월 시기의 어머니에 의한 돌봄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Paulussen-Hoogeboom, Stams, Hermanns와 Peetsma(2007)가 수행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지적 양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민정, 김소영, 이경옥, 2020; Oddi, Murdock, Vadnais, Bridgett, & Gartstein, 2013; Pesonen et al., 2008; Prino et al., 2016). 부모는 영아기 자녀에 대해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기질적으로 까다롭다고 인식할수록 자녀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Moe, von Soest, Fredriksen, Olafsen, & Smith, 2018). 이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고, 우울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Cutrona & Troutman, 1986), 이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일상에서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면 어머니는 자녀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많아짐으로써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다(김송이, 최혜영, 200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기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온정성과 반응성을 감소시키고, 권위주의적인 양육 등 부정적 양육행동과 관련되며(민현숙, 문영경, 2013; Deater-Deckard, 1998), 반면에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일수록 영아와 효율적이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김정미, 2017; 김영미, 송하나, 2015). 이와 같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세 변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Paulussen-Hoogeboom, Stams, Hermanns과 Peetsma의 연구(2008)

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 간의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와 아동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때 자녀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이 관련되었으나,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자녀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reund, Linberg와 Weinert(2019)은 어머니에게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저하되며 자녀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 논문 중에서는 유아기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신지연의 연구(2011)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의 어머니는 이러한 자녀의 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유아에게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어머니 개인의 내적 자원이나 심리적 특성이 스트레스 경험을 완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모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내적 자원으로서 ‘그릿(gri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으로 정의되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실패나 역경,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끊임없이 노력하며, 목표나 관심이 쉽게 바뀌지 않고 유지되는 특성을 나타낸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특히 Teuber 등(2024)은 그릿을 부모의 역할에 적용하여 ‘부모 그릿(gritty parenting)’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부모 그릿은 장기적인 양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모가 끈기와 지속적인 열정, 적응력을 발휘하는 성향으로 정의된다.

영아기 부모의 그릿을 다룬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릿이 높은 어머니들은 반응적 양육 방식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미애, 2025; Jung, Ishibashi, Shinya, & Itakura, 2024). 또한 어머니의 그릿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진, 2025; Lam et al., 2026). 영아기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그릿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Freund 등(2019)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은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논문의 경우 이진화와 조인경(2026)이 영아기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그릿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으나, 영아의 외향적 기질과 조절/지향 기질에서만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부정적 정서성 기질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조절효과, 즉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그릿이 심리적인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아기 자녀의 기질적 특성으로서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머니의 그릿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그릿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특성으로서 그릿의 중요성을 밝혀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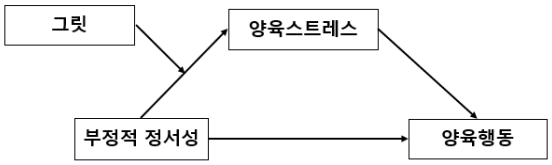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그릿이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anel; K-ECEC-P) 자료 중 1차년도(2022)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2,564가구의 데이터 가운데, 본 연구의 모든 변인에 응답한 2,157가구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영아의 평균 월령은 6.35개월(SD = 1.90)이었으며, 성별은 남아 1,099명(51.0%), 여아 1,058명(49.0%)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50세(SD = 4.16)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 1,181명(54.8%), 전문대 졸업 447명(20.7%),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7명(14.2%), 대학원 이상 206명(9.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상태는 취업중 1,117명(51.8%), 학업중 22명(1.0%), 미취업/미학업 1,018명(47.2%)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Putnam, Helbig, Gartstein, Rothbart와 Leerkes(2014)의 영아 행동 척도를 임지영과 배윤진(2021)이 번안한 한국판 Rothbart 영아기 기질 척도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정서성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피곤하면 짜증을 낸다”, “즐거웠던 하루가 끝나갈 때만 울먹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랬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부정적 정서성 척도의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이다.

2) 그릿

어머니의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의 간략형 그릿 척도를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희명과 황매향(2015)의 원척도는 아동 대상으로 타당화하였으나,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연구진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나는 노력가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끈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그릿 척도의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1이다.

3)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예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다.

4)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Bornstein 등(1996)의 양육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연구진은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1차년도 조사에서는 2개 문항을 추가하였다. 본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잘 만족시켜 준다", "나는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양육행동 척도의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이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9.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과 Hayes(2017)의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연구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영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릿에 의해 조절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을 위해 조절변인 수준에 따라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모든 분석에서 아동의 성별과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왜도는 3, 첨도는 10을 각각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표 1의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미미한 수준으로 정적상관(r = .05, p < .05)을 나타내,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부적상관(r =

표 1. 주요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 = 2,157)

구분	1	2	3	4
1. 부정적 정서성	-			
2. 양육스트레스	.05*	-		
3. 그릿	-.02	-.43***	-	
4. 양육행동	.01	-.49***	.33***	-
M	4.62	2.57	3.21	3.92
SD	1.09	0.74	0.54	0.52
왜도	-.28	.18	.09	-.46
첨도	-.30	-.12	.20	1.26

*p < .05. ***p < .001.

-.49, $p < .001$)을, 그릿은 양육행동과 정적상관($r = .33$, $p < .001$)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낮아졌고, 어머니의 그릿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아졌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그릿은 부적상관($r = -.43$, $p < .001$)을 보여,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릿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여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밝힌 선행연구들(서지형, 송주현, 2023; Bollen, 1989)을 참고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03$, $p < .05$).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 = .02$, $p < .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34$, $p < .00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으면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또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으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표본수 5,000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표 3 참조). 그 결과 간접효과의 크기는 -.01이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5% CI = [-.02, -.00]).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조절된 매개효과

어머니의 그릿 수준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표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N = 2,157)

경로	*B*	*SE*	*t*	R^2	*F*
부정적 정서성 → 양육스트레스	.03	.01	2.08*	.02	11.38*** (3. 2153)
아동성별 → 양육스트레스	-.04	.03	-1.38		
가구소득 → 양육스트레스	-.00	.00	-5.18***		
부정적 정서성 → 양육행동	.02	.01	2.17*	.25	176.51*** (4, 2152)
양육스트레스 → 양육행동	-.34	.01	-25.89***		
아동성별 → 양육행동	-.00	.02	-.08		
가구소득 → 양육행동	.00	.00	3.00**		

*$p < .05$. **$p < .01$. ***$p < .001$.

표 3.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N = 2,157)

경로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부정적 정서성 → 양육스트레스 → 양육행동	-.01	.01	-.02	-.00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할 경우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 = .26, p < .001),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그릿이 상호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 p < .01). 어머니의 그릿 수준에 따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가 조절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의 그릿 수준에 따라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B = .02, p < .05)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 = -.34, p < .001)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수 5,000개를 추출하고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02로 산출되었으며, 95%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어머니의 그릿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5% CI = [.01, .04]).

다음으로, 어머니의 그릿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 그릿수준을 평균보다 낮은 수준(-1SD), 평균 수준(M), 평균보다 높은 수준(+1SD)의 3수준에서 간접효과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6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그릿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1SD)과 평균인 집단(M)에서 95%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릿이 높은 경우,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릿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그릿에 따라 영아의

표 4.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그릿에 의해 조절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N = 2,157)

변인	종속변인: 양육스트레스						
	B	SE	t	95%		R^2	F
				$LLCI$	$ULCI$		
부정적 정서성	.26	.08	3.42***	.11	.41	.19	104.08*** (5, 2151)
그릿	-.24	.11	-2.15*	-.46	-.02		
부정적 정서성 × 그릿	-.07	.02	-3.11**	-.12	-.03		
아동성별	-.04	.03	-1.52	-.10	.01		
가구소득	-.00	.00	-3.27**	-.00	-.00		
변인	종속변인: 양육행동						
	B	SE	t	95%		R^2	F
				$LLCI$	$ULCI$		
부정적 정서성	.02	.01	2.17*	.00	.04	.25	176.51*** (4, 2152)
양육스트레스	-.34	.01	-25.89***	-.37	-.32		
아동성별	-.00	.02	-.08	-.04	.04		
가구소득	.00	.00	3.00**	.00	.00		

*p < .05. **p < .01. ***p < .001.

표 5.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 = 2,157)

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95% CI	
		$Boot$LLCI	$Boot$ULCI
.02	.01	.01	.04

표 6. 그릿에 따른 조건부 효과 (*N* = 2,157)

조절변인	수준	*Effect*	*BootSE*	95% CI	
				LLCI	ULCI
그릿	-1*SD*	-.02	.01	-.04	-.01
	M	-.01	.00	-.02	-.00
	+1*SD*	.00	.01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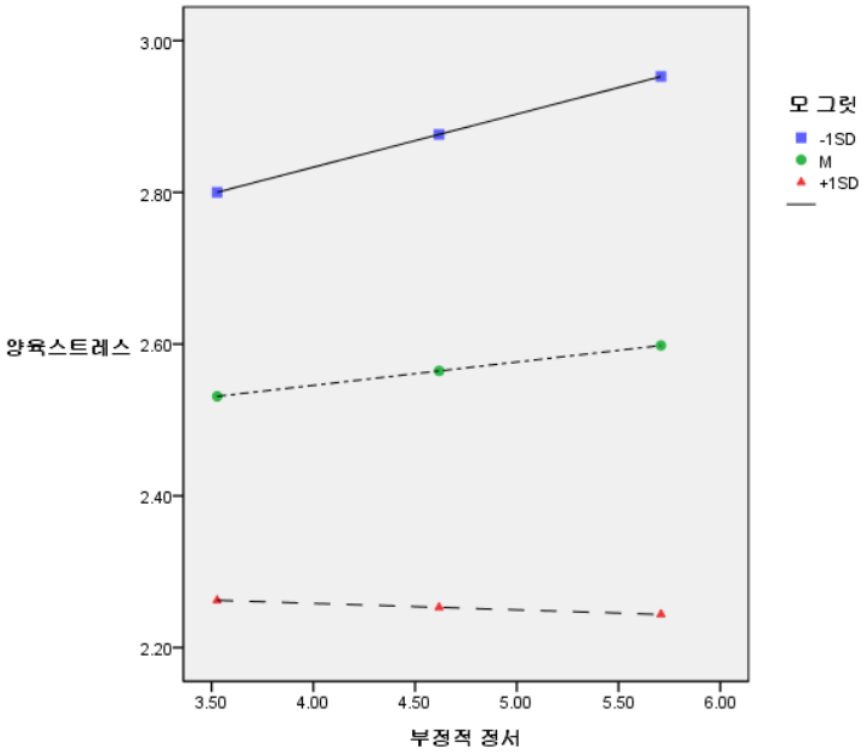


그림 2.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그릿의 상호작용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그림 2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그릿이 낮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그릿이 낮을수록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그릿에 의해 조절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슬픔, 두려움, 좌절과 과민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많은 에너지를 쏟도록 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민정 등, 2020; Oddi et al., 2013; Pesonen et al., 2008; Prino et al., 2016), 그리고 높은 양육스트레스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김영미, 김정미, 2017; Moe et al.,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이 양육자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Sameroff(1975)의 상호교류모형에 따르면, 영아의 기질은 양육자의 반응을 유발하고, 양육자의 반응은 다시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환경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수동적 모델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유전적 성향을 바탕으로 경험을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Plomin, 201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녀의 기질이나 행동 특성은 부모의 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부모는 이에 반응하여 자신의 양육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나,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고 인식한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이 반응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영아의 부정적 정서는 어머니로 하여금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한다고 여겨지나, 오히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위해 보다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나 까다로움과 관련된 기질적 특성들이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있지만(Bridgett et al., 2009; Kiff et al., 2011), 오히려 반응적 양육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rockenberg (1986)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 간에 긍정적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히 자원이 풍부한 중상위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의 경우 자신의 양육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자녀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Paulussen-Hoogeboom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을 한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고 인식한다고 해서 부정적 양육을 하기 보다는 자녀의 정서를 잘 조절해주기 위해 오히려 애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자녀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면 이는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위해 반응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스트레스로 인식하게 되면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영아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대해 높은 정서적 반응성을 나타내며 이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더라도 반응적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그릿에 의해 조절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그릿이 높은 경우에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거나 낮더라도 양육스트레스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릿이 낮거나 평균인 경우에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낮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이 높은 어머니는 열정과 인내를 갖고 있으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가 높더라도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그릿이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보호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박서진, 2025; Lam et al., 2026)를 지지한다. 또한 어머니의 그릿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녀에 대한 해석과 정서적 반응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미애, 2025)에 근거해 볼 때 그릿이 높은 어머니는 부정적 기질이 높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으로서 열정과 인내를 갖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영아기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의 그릿, 양육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그릿이 자녀의 기질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정미애, 2025),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그릿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진화, 조인경, 2026)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릿을 어머니가 지닌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보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로 인해 양육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는 데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즉 그릿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인내와 열정을 갖고 노력해 나가므로 자녀의 높은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질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스트레스로 덜 받아들이고, 부정적으로 양육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인 그릿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영아의 기질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특성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그릿은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로 인해 부정적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완충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 어머니의 양육 부담이 크므로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적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가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에게도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영아기 자녀의 발달과 기질 특성에 대한 이해, 스트레스 대처와 조절 능력 함양, 가족 등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그릿의 역할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그릿을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인 양육과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그릿은 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 가능하며 학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개입 전략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uckworth et al., 2007; Hwang & Nam, 2021). 부모를 대상으로 한 그릿 증진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않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릿과 마인드셋, 자기효능감과 웰빙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거나(Sigmundsson & Hauge, 2024), 장기적 목표 설정, 자기조절, 회복탄력성, 열정과 끈기 등의 핵심요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사례가 있다(이상미, 김갑순, 2025). 따라서 어머니의 그릿을 비롯한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장기적인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어머니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영아의 부정적 정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보다 높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모든 변인을 동일한 시점에 측정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그릿, 양육 관련 특성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종단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교류적인 관계라고 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다시 영아기 또는 그 이후의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연구한다면 영아기 자녀와 어머니의 상호교류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그릿과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아의 부정적 정서로부터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완충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그릿의 중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영아의 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민정, 김소영, 이경옥 (2020).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양육지식, 영아의 성별과 기질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20(2), 1-15. https://doi.org/10.21213/kjcec.2020.20.2.1

김송이, 최혜영 (2007). 자녀의 정서성과 남편의 부모역할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대한가정학회지**, 45(8), 1-11.

김영미, 김정미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상호작용 행동과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7(2), 169-187.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2.008

김영미, 송하나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 (Grit) 척도의 타당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5(3), 63-74.

민현숙, 문영경 (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43-56. https://doi.org/10.5934/kjhe.2013.22.1.43

박서진 (202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그릿, 결혼만족도, 스마트폰 과의존과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 **지식융합연구**, 8(2), 553-583. https://doi.org/10.47636/gkca.2025.8.2.553

서지형, 송주현 (2023).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이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만 4-5세 아동의 마음이론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13(3), 1-15. https://doi.org/10.30528/jolss.2023.13.3.001

신지연 (2011). 유아의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5(2), 291-312.

이상미, 김갑순 (2025). 영유아교사의 그릿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 경험의 의미. **부모교육연구**, 22(3), 219-246. https://doi.org/10.61400/JPE.2025.22.3.219

이진화, 조인경 (2026). 영아기 자녀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그릿과 아버지 양육참여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7(2), 87-115. https://doi.org/10.15818/ihss.2026.27.2.87

임지영, 배윤진 (2021). 한국판 Rothbart 영아기 기질 척도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의 타당화.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2), 143-156. https://doi.org/10.6115/fer.2021.011

정미애 (2025). 어머니의 그릿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녀기질과 자녀가치의 이중매개효과. **육아지원연구**, 20(2), 5-24.

http://doi.org/10.16978/ecec.2025.20.2.001

최정희, 신나리 (2018).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인간발달연구, 25(3), 51-71. https://doi.org/10.15284/kjhd.2018.25.3.51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An, D., & Kochanska, G. (2023). Sequelae of infants' negative affectivity in the contexts of emerging distinct attachment organizations: Multifinality in mother-child and father-child dyads across the first yea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5*(4), 2011-2027. https://doi.org/10.1017/S0954579422000669

Behrendt, H. F., Wade, M., Bayet, L., Nelson Ⅲ, C. A., & Enlow, M. B. (2020). Pathways to social-emotional functioning in the preschool period: The role of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anxiety in boys and girl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2*(3), 961-974. https://doi.org/10.1017/S0954579419000853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Bridgett, D. J., Gartstein, M. A., Putnam, S. P., McKay, T., Iddins, E., Robertson, C., Ramsay, K., & Rittmueller, A. (2009). Maternal and contextual influences and the effect of temperament development during infancy on parenting in toddlerhoo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2*(1), 103-116. https://doi.org/10.1016/j.infbeh.2008.10.007

Casalin, S., Luyten, P., Vliegen, N., & Meurs, P. (2012). The structure and stability of temperament from infancy to toddlerhood: A one-year prospective stud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5*(1), 94-108. https://doi.org/10.1016/j.infbeh.2011.08.004

Crockenberg, S. B.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 giving? In J. V. Lerner & R. M. Lerner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No. 31,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s and Children, pp. 53-7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https://doi.org/10.1002/cd.23219863105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https://doi.org/10.2307/1130428

Deater-Deckard, K. (1998). Parenting stress and child adjustment: Some old hypotheses and new questions.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3), 314-332. https://doi.org/10.1111/j.1468-2850.1998.tb00152.x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Eisenberg, N., Spinrad, T. L., & Eggum, N. D. (2010). Emotion-related self-regulation and its relation to children's maladjust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95-525.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121208.131208

Eisenberg, N., Valiente, C., Spinrad, T. L., Cumberland, A., Liew, J., Reiser, M., Zhou, Q., & Losoya, S. H. (2009).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occurr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https://doi.org/10.1037/a0016213

Freund, J. D., Linberg, A., & Weinert, S. (2019). Longitudinal interplay of young children's negative affectivity and maternal interaction quality in the context of unequal psychosocial resourc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5*, 123-132. https://doi.org/10.1016/j.infbeh.2019.01.003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Hershberger, S. L. (1994). Genotype-environment interaction and correlation. In R. Plomin & J. C. DeFries (Eds.), *Nature and nurture during middle childhood* (pp. 281-294). Malden, MA: Blackwell.

Hwang, M. H., & Nam, J. K. (2021). Enhancing grit: Possibility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n L. E. van Zyl, C. Olckers, & L. van der Vaart (Eds),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grit* (pp. 77-93). Cham: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030-57389-8_5

Jung, A., Ishibashi, M., Shinya, Y., & Itakura, S. (2024).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grit and effortful control among 18-21-month-old toddlers. *Frontiers in Psychology, 15*, 1346428.

https://doi.org/10.3389/fpsyg.2024.1346428

Kiff, C. J., Lengua, L. J., & Zalewski, M. (2011). Nature and nurturing: Parenting in the context of child temperament.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 251-301. https://doi.org/10.1007/s10567-011-0093-4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https://doi.org/10.1037/0012-1649.36.2.220

Komsi, N., Räikkönen, K., Pesonen, A. K., Heinonen, K., Keskivaara, P., Järvenpää, A. L., & Strandberg, T. E. (2006). Continuity of temperament from infancy to middle childhood.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4), 494-508. https://doi.org/10.1016/j.infbeh.2006.05.002.

Kopp, C. B., & Neufeld, S. J. (2003). Emotional development during infancy.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347-37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am, K. K. L., Liang, K., Huang, L., Lin, X., Wang, Z., Liu, H., & Chi, P. (2026). Grit protects Chinese parents of autistic children from the risk of psychological distress by reducing perceived parenting stress. *Research in Autism, 132,* 202829. https://doi.org/10.1016/j.reia.2026.202829

Moe, V., von Soest, T., Fredriksen, E., Olafsen, K. S., & Smith, L. (2018). The multiple determinant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12 months after birth: The contribution of antenatal attachment styl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infant temperament. *Frontiers in Psychology, 9*, 1987. https://doi.org/10.3389/fpsyg.2018.01987

Murphy, B.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 Guthrie, I. K. (1999). Consistency and change in children's emotionality and 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5*(3), 413-444.

Oddi, K. B., Murdock, K. W., Vadnais, S., Bridgett, D. J., & Gartstein, M. A. (2013). Maternal and infant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s contributors to parenting stress in the first year postpartu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2*(6), 553-579. https://doi.org/10.1002/icd.1813

Paulussen-Hoogeboom, M. C., Stams, G. J. J. M., Hermanns, J. M. A., & Peetsma, T. T. D. (2007).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from infancy to preschool: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438-453. https://doi.org/10.1037/0012-1649.43.2.438

Paulussen-Hoogeboom, M. C., Stams, G. J. J., Hermanns, J. M., & Peetsma, T. T. (2008). Relations among child negative emotionality, parenting stress, and maternal sensitive responsiveness in early childhood.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8*(1), 1-16. https://doi.org/10.1080/15295190701830656

Pesonen, A. K., Räikkönen, K., Heinonen, K., Komsi, N., Järvenpää, A. L., & Strandberg, T. (2008). A transactional model of temperamental development: Evidence of a relationship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stress over five years. *Social Development, 17*(2), 326-340.

Plomin, R. (2014). Genotype-environment correlation in the era of DNA. *Behavior Genetics, 44*, 629-638. https://doi.org/10.1007/s10519-014-9673-7

Prino, L. E., Rollè L., Sechi, C., Patteri, L., Ambrosoli, A., Caldarera, A. M., Gerino, E., & Brustia, P. (2016). Parental relationship with twins from pregnancy to 3 months: The relation among parenting stress, infant temperament, and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7*, 1628. https://doi.org/10.3389/fpsyg.2016.01628

Propper, C., & Moore, G. A. (2006). The influence of parenting on infant emotionality: A multi-level psychobiological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26*(4), 427-460. https://doi.org/10.1016/j.dr.2006.06.003

Putnam, S. P., Helbig, A. L., Gartstein, M. A., Rothbart, M. K., & Leerkes, E. (2014).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6*(4), 445-458. https://doi.org/10.1080/00223891.2013.841171

Rodriguez, M. L., Ayduk, O., Aber, J. L., Mischel, W., Sethi, A., & Shoda, Y. (2005). A context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ory competencies: The role of maternal unresponsivity and toddlers' negative affect in stressful situations. *Social Development, 14*, 136-157.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5.00294.x

Rothbart, M. K. (1989).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 Kohnstamm, J.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187-248). Chichester, UK: Wiley.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Vol. 3, pp. 99-166). Hoboken, NJ: Wiley.

Sallquist, J. V., Eisenberg, N., Spinrad, T. L., Reiser, M., Hofer, C., Liew, J., Zhou, Q., & Eggum, N. (2009).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Trajectories across six years and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Emotion, 9*(1), 15-28. https://doi.org/10.1037/a0013970.

Sameroff, A. (1975). Transactional models in early social relations. *Human Development, 18*(1-2), 65-79. https://doi.org/10.1159/000271476

Sigmundsson, H., & Hauge, H. (2024). I CAN intervention to increase grit and self-efficacy: A pilot study. *Brain Sciences, 14*(1), 33. https://doi.org/10.3390/brainsci14010033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T., Smith, C. L., Kupfer, A., Greving, K., Liew, J., & Hofer, C. (2007). Relations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5), 1170-1186. https://doi.org/10.1037/0012-1649.43.5.1170

Teuber, Z., Datu, J. A. D., Botes, E., Dicke, T., Jordan, G., Lan, X., Iliescu, D., Guo, J., & Greiff, S. (2024). Gritty parenting: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al Grit Scale. *Assessment, 32*(7), 1120-1141. https://doi.org/10.1177/10731911241289242

Wittig, S. M. O., & Rodriguez, C. M. (2019). Emerging behavior problems: Bidirectional relations between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with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55*(6), 1199-1210. https://doi.org/10.1037/dev0000707